

창문 두드리는 비 12월 9일 (음 10월 19일)

기압골의 영향으로 흐리고 비오는 날이 온 뒤 개겠다.

광주	4~7℃
포항	5~8℃
여수	6~9℃
안동	5~8℃
대구	3~8℃
울산	3~9℃
대전	3~9℃
충주	6~9℃
청주	3~8℃
전주	5~8℃
부산	5~9℃
제주	3~7℃
목포	1~7℃
진주	3~7℃
통영	3~7℃

서해남부 앞바다 북서~북동풍 파고 2.0~4.0m
서해남부 먼바다 북서~북동풍 파고 2.0~4.0m
남해서부 앞바다 북서~북동풍 파고 2.0~3.0m
남해서부 먼바다 북서~북동풍 파고 2.0~4.0m

목포 밀물 < 04:24 썰물 < 09:46
여수 밀물 < 11:58 썰물 < 05:20
17:20 22:42 23:55 18:07

기상내보내화: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짜	10(일)	11(월)	12(화)	13(수)	14(목)	15(금)
날씨	☀	☀	☁	☁	☁	☁
최저/최고	0/19	1/12	2/11	4/9	3/10	2/9

주말 오락가락 비

광주·전남 강풍속 5~10mm 내려

광주지방기상청은 "서쪽에서 접근한 기압골의 영향으로 주말인 9일 5~10mm의 비가 내린다"고 8일 밝혔다.

9일 광주의 아침 최저기온은 4도, 낮 최고기온은 7도로 평년(0~9도)과 비슷하겠다.

찬 대륙 고기압이 서서히 확장, 북서기류가 우리나라 쪽으로 불어오면서 바람은 강하게 불 전망이다.

기상청은 8일 오후 남해서부 먼바다에 풍랑주의보(평균 풍속 초속 14m 이상이 3시간 이상 지속될 때), 서해남부 모든 바다에 풍랑예비특보를 내렸다. 목포·신안·영광·대흑산도·홍도에는 강풍예비특보(평균 풍속 초속 14m, 순간 풍속 20m 이상)를 발령했다.

서해남부·남해서부 모든 바다에서는 안개가 짙게 끼고, 파도가 2~4m로 높게 일 것으로 보여, 항해·조업하는 선박들은 주의해야 한다. 비는 기압골이 동쪽으로 빠져나가면서 9일 오후쯤 그칠 전망이다.

기상청은 "휴일인 10일은 구름이 조금 끼고, 대체로 날씨가 맑겠다"고 예보했다. 비가 그친 뒤 기온은 다소 떨어진다.

10일 지역별 아침 기온은 광주 0도, 구례·곡성·순천 영하 2도, 장성·나주 영하 1도 등 대부분의 내륙산간지역이 영하권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승배기자 lsb54@kwangju.co.kr

경찰청은 범죄 소굴?

작년 공무원 직무 범죄 최다

194명 사법처리...2위 노동부

대검찰청은 지난해 일진한 국가 공무원의 소속 기관과 범죄 유형을 분석한 결과 직무와 관련된 범죄를 저지른 직원이 가장 많은 정부기관은 경찰청이고 그 뒤를 이어 노동부, 법무부, 건설교통부 순으로 조사됐다고 8일 밝혔다.

대검이 최근 발간한 '2006 범죄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직무유기·직권남용·뇌물 등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로 경찰청 공무원 194명이 사법처리됐고 노동부와 법무부, 건설교통부 공무원은 각각 14명, 13명, 12명이 처벌됐다. 국세청(11명), 해양수산부(6명), 산업자원부·식약청·문화재청(3명), 해양경찰청·행정자치부(2명) 등에서도 각각 소속 공무원 2명 이상이 형사처벌을 받았다.

범죄의 동기는 부주의(38명)가 가장 많았고, 우발적 동기(14명), 생활비(12명)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관련 폭력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음주운전 등 전체 형법범과 특별법 위반사범을 포함하면 각 시도 교육청 공무원을 포함한 교육인적자원부 소속 공무원이 1천850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찰청 955명, 법무부 157명, 국세청 83명 순이었다.

특별시와 광역시·도 소속의 지방공무원엔 전체 형법범과 특별법 위반 사범이 4천803명에 달했고, 이중 직무 관련 범죄자는 454명이었다. /연합뉴스

전국 논술대회 최우수상 받은 광주 일곡중 논술교실 '대숲소리'

독서하고 토론하니 글쓰기 저절로

매주 토요일마다 흘렀던 '땀방울'이 결실을 맺었다. '놀토'도 반납하고 학교에 나와 논술공부를 했던 광주 일곡중학교 학생들이 최근 '아름다운 학교운동본부'가 개최한 '2006전국학생논술경연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

일곡중 국어담당 김홍식(49)교사가 '토요일 논술교실'을 운영하려고 결심한 것은 지난 4월. 20년 가까이 고등학교에서 진학 지도를 한 김 교사는 논술로 고민하는 학생들을 수없이 봐왔던 터였다. 김 교사는 학생들에게 어려울 때부터 논술교육을 하는 것만이 제자들에게 베퉴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이라고 생각했다.

놀토·방학때 흘린 땀방울 결실

논술 교육의 특성상 '소수정예'를 선발할 수밖에 없었다. 김 교사가 논술교실을 만든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30명이 넘는 학생들이 자원을 했다. 김 교사가 낸 시험을 통과한 학생은 12명. 애초 10명만 뽑을 계획이었으나 한영승(13·1년) 군 등에게서 재능이 엿보여 추가로 선발했다.

논술교실의 이름은 '대숲소리'로 정했다. "논술은 대나무처럼 '바람'의 의견을 논리적이고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이라는 김 교사의 말에서 힌트를 얻은 학생들이 고민 끝에 고른 이름이다. 학교에서는 교무실 인근의 학교운영위원회 회의실을 '대숲소리'의 교실로 내줬다.

수업은 다른 학생들이 모두 귀가한 매주 토요일 오후 2~4시 진행됐다. '놀토' 때도 여름방학 때도 쉬는 날은 없었다. 수업은 원래 2시간만 할 계획이었지만, 논술의 매력에 흠뻑 빠진 학생들은 해 질 녘까지 학교에 남기 일쑤였다.



광주 일곡중 '대숲소리' 학생들이 김홍식 교사와 함께 토론을 하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김 교사가 가르치는 방식은 일반 논술교실과 달랐다. 무작정 글 쓰기를 시키기보다 독서와 토론을 유도했다. 김 교사가 주제를 정해주면 학생들이 관련 자료를 수집한 뒤, 열띤 토론을 벌였다. '사형제도 폐지 논란'이 주제였을 때, 학생들은 소설가 공지영씨의 베스트 셀러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까지 돌려보며 논거를 찾았다.

잘된 글 돌려보며 논술공부 매진

학생들이 본격적으로 글을 쓰기 시작한 것은 1학기가 끝나갈 무렵. 토론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 이메일로 김 교사에게 글을 보냈다. 김 교사는 꼼꼼히 첨삭 지도를 하고 잘 된 글은 돌려보게 했다. 지난 8월 학교에 공문 한 장이 전달됐다. '아름다운

학교운동본부'가 '2006전국학생논술경연대회'를 개최한다는 것이었다. 여름내 실력을 갈고 닦았던 '대숲소리' 학생들은 3라운드로 나뉘어 진행되는 논술경연의 중등 부문에 출전했다. 12명 가운데 10명이 대표로 나섰다. 참가 학생들은 1라운드를 가뿐히 통과했고, 2라운드에서도 1명만 탈락하는 선전을 벌였다.

3라운드 주제는 '사형제도의 폐지에 관한 입장', '우리가 왜 공부를 해야하는가' 등으로 몇 번이나 토론했던 내용이었다. 온라인으로 진행된 대회에서 대숲소리 학생들은 정당한 논리로 실력을 뽐내, 최우수상(팀 부문)을 거머쥐었다.

하루에 문학 서적 1권을 꼭 읽는다는 2학년 윤나영(14)은 "비싼 학원비 들여 논술학원 다니는 친구들보다 훨씬 글을 잘 쓸 수 있다"며 자신감을 보였다. /임주형기자 jhlhm@kwangju.co.kr

광주 건설업체 사주 납치사건

국제PJ파 중간보스 총괄 지휘

광주 중견 건설업체 사주 공모(47)씨의 납치사건은 광주지역 최대 폭력조직인 국제PJ파 중간보스가 총괄적으로 지휘한 것으로 보고 경찰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중인 광주 남부경찰은

8일 공씨 납치에 가담한 혐의로 이미 검거된 이모(36)씨를 상대로 조사를 벌인 결과 이씨의 매형인 국제PJ파 중간보스인 J씨가 납치를 진두 지휘했다는 진술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공씨 납치에

한 것으로 보고 J씨 신병확보에 나섰다. 경찰은 또 납치 용의자 중 신원이 확인된 3명이 이미 와해된 목포 S과 폭력조직원들인 것으로 보고 형사 20명을 급파해 이들을 쫓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국제PJ파에 가입해 조직원으로 활동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중이다. 한편, 경찰은 이날 경찰이 신청한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증거 보완 등의 이유로 재지휘했다.

경찰 관계자는 "납치 사건의 배후에 대한 윤곽은 잡아가고 있지만, 민감한 사건이라 완벽하게 처리하라는 취지에서 재지휘를 내린 것"이라고 밝혔다. /서민정기자 viola@kwangju.co.kr



"사형제도 폐지합니다" 국제엠네스티 광주·전남지부 회원들이 8일 '제 58주년 세계인권선언일'(12월 10일)을 기념해 광주시 동구 충장로 1가 광주우체국 앞에서 '사형제도 폐지'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크리스마스 썰' 78% 학생들이 산다

판매량 급감 애플단지 전략...강매 논란도 계속

결핵퇴치기금을 모으기 위해 만들어진 '크리스마스 썰'(Christmas Seal)이 애플단지로 전락했다. 판매량은 갈수록 떨어지고, '강매' 논란은 올해도 계속되고 있다.

8일 대한결핵협회 광주·전남지부(이하 결핵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전남에서는 약 146만 개(1장 250원)의 썰이 팔려 3억6천500여만원의 후원금이 모였다. 지난 2004년(156만여장, 3억9천120만원)과 비교했을 때

판매량은 약 6.5%가 줄었다. 전국적으로도 ▲2003년 약 65억4천만 원 ▲2004년 약 64억8천만 원 ▲2005년 약 62억3천100만 원 등 해마다 줄어드는 추세다. 특히 올해는 가격이 장담 250원에서 300원으로 20% 올라 판매량은 더욱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판매방법은 과거 그대로다. 지난해의 경우 총 모금액 3억6천500여만원 가운데 학교(초·중·고·대학)가 차지하는 비율은 78.2%(2억8천500만

원)로 가장 높았다. 공무원이 13.5%(4천900만원)로 뒤를 이었지만, 1등과의 차이는 약 5.8배에 달한다.

거의 대부분이 학생들에게 팔리고 있는 썰이다. 주요 포털사이트나 대한결핵협회 자유게시판에 불만의 글로 가득했다.

'학생'이라는 필명을 쓴 한 네티즌은 대한결핵협회 자유게시판에 "사랑의 실천은 자발적인 것인데 협박과 강제로 사게 해 기분이 나쁘다"면서 "마치 약자에게 돈을 뜯어가는 것처럼 보인다"고 적었다.

결핵협회 관계자는 "학생들에게 썰

나원침 (6997)



은행서 나오던 주부에

염산 뿌리고 돈 빼앗아

은행에서 돈을 인출한 주부를 뒤쫓아가 얼굴에 염산을 뿌린 뒤 돈을 빼앗아 달아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순천경찰은 8일 강도상해 혐의로 신모(33·고흥군 도덕면)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달 17일 오후 2시30분께 순천시 풍덕동 출몰 남순천지점 앞에서 현금 120만원을 인출해 나온 김모(여·48)씨를 쫓아가 "사모님"하고 부른 뒤, 얼굴에 염산을 뿌렸다. 김씨는 염산이 목과 가슴까지 흘러내려 3도 화상을 입었다. 신씨는 범행을 저지르기 4시간 전부터 이 은행 인근에서 기다렸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신씨가 이 은행 입구에 설치돼 있던 CCTV에 모신 씨 수차례 찍힌 것을 수상히 여겼고, 신씨를 붙잡아 추궁한 결과 범행을 자백받았다. /순천=김진수기자 jsk2229@

광주 인화학교

이사 면직권고

장학학생이 교직원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해 물의를 빚었던 광주 인화학교의 사회복지법인에 대해 법원이 법인 이사를 면직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안을 발송했다.

광주지법 행정부(재판장 선재성)는 8일 광주인화학교 사회복지법인 '우석'과 광주 광산구청 등에 보낸 화해권고안에서 "법인은 광주인화학교에서 발생한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했고 보강 증거도 있는 만큼 유죄로 판단된다"며 징역 10년 및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

정씨는 1996년 3월~1998년 1월 3차례 걸쳐 국내에 잠입해 경북 울진 원전과 충남 천안 공군 레이더기지, 서울 용산미 8군 부대 등 주요 시설을 촬영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구속 기소돼 징역 20년이 구형됐다. /연합뉴스

'무인도 고립' 신고하고 보니 유인도

○...유인도(有人島)에서 바다낚시를 하던 낚시꾼 2명이 무인도에 고립된 것으로 착각, 신고하는 바람에 해경이 긴급 구조에 나서서 등한바탕 소동.

○8일 완도해경에 따르면 이모(67·경기도 고양시)씨 등 낚시꾼 2명이 이날 오전 11시20분께 완도군 소안도 근처 무인도에 고립됐다고 신고해와 경비정과 민간자율구조선을 동원해 소안도 인근 무인도를 수색했으나 이들을 찾지 못하고 철수.

○해경은 이씨에게 전화를 걸어 위치를 추적한 결과 이들이 고립됐다고 신고한 섬은 영화 '그 섬에 가고 싶다'의 촬영지로 알려진 완도군 소안면 '당사도'로, 30가구 50여명의 주민이 살고 있는 유인도였다. /완도=정은주기자 ejchung@